

## 균형잡힌 성경적 교회

지난 4월호 커버 스토리의 대로우 밀러와 함께 내한한 밥 모피트, 대로우 밀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밥 모피트는 그 실제 적용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다스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실제적인 적용을 가르치는 사람, 자신을 그 어떤 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밥 모피트(Bob Moffitt)를 아세아연합신학대 박영주 교수가 만났다.

🗣 인터뷰어 박영주(아세아 연합신학대 교수)



**Question**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지, 또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이번이 열 번째 한국 방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DNA(Disciple Nations Alliance) 협의회가 주관하는 비전 컨퍼런스를 위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로우 밀러와 제가 주창해온 사역에 동참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역 원리를 대도시, 부유한 지역, 혹은 빈곤층 등 다양한 문화 집단에서 소규모 단위로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집회는 그동안의 사역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사역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하면 규모가 큰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려고 참석했습니다.

**Question** 총재로 섬기고 계신 하비스트(Harerst)는 어떤 단체인가요?

**Answer** 하비스트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조차도 '애야, 다시 한 번 설명해봐라, 하비스트가 뭐라고?'하며 묻곤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관점에서 교회 사역은 전도와 교회 개척이 전부인데, 하비스트는 그러한 유형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비스트는, 교회가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교



회가 희생적으로 이 세상을 섬기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제 31년이 된 하비스트는 미국 교회들이 가난한 제3세계의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돕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3세계의 교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물질적 자원에 너무 의존하게 되며 심지어는 이런 자원 관리에 부패가 만연하고 또 이 자원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한 지 5년되던 지난 1986년에, 사역자들이 아이티에 있는 저희 본부에 모여 모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돕길 원하는 가난한 교회들이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반박했지요. '주님, 이들은 목사 월급도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 걸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에 나타난 원리들을 직접 보여주어라. 내가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희생적인 나눔에 대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그들의 자원을 배가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사역했던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교회 이야기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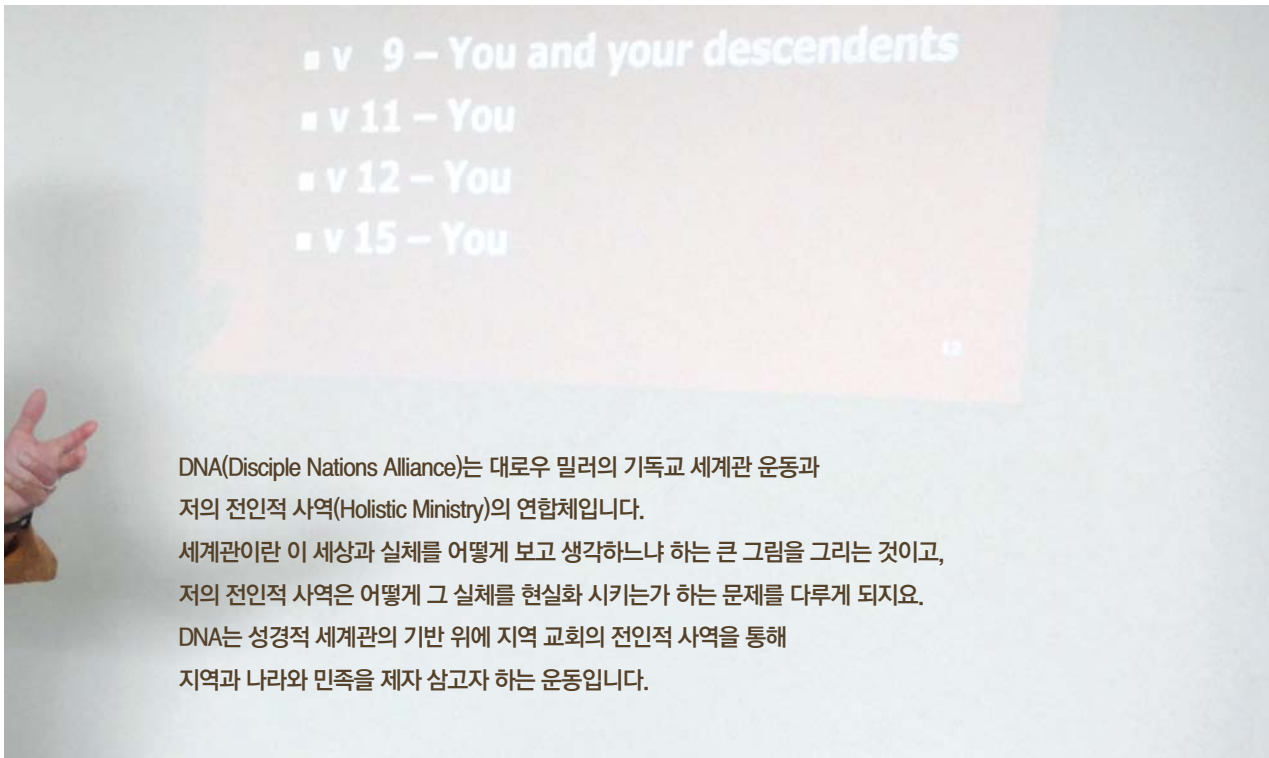
드릴게요.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둑 아래 슬럼가에 있는 교회의 목사는 유명한 야구선수였는데, 화려한 직업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교회에 문짝이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더구나 교회 맞은 편에 있던 술집에서도 교회 건축을 싫어해서 박해가 대단했지요. 교회에는 남자라곤 없었고, 미혼모, 과부, 고아만 몇 명 나올 뿐이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저희 단체 직원이 그분을 만나 교회 건물을 세우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역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지요.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한주 동안 집에서 쌀, 설탕, 소금 등을 절약한 것을 주일에 교회로 가져와서 서로 나누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그 지역에 미친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중에는 그 지역 공무원이 찾아와 자주 범람하는 강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곳 주민들이 강둑 위의 시내까지 쉽게通行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해달라는 요청까지 하더라고요. 공무원 들조차 부패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지역 사회를 진정으로 위해 일할 사람은 그 목사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던 목사님이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변혁이 시작되었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문화와 환경이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들조차 젊은 예비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할 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열심히 배가 사역을 해서는 결국 점점 더 많은 수의 영적 아이들을 양산해내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Question DNA라는 단체는 어떤 곳입니까?**

**Answer** DNA(Disciple Nations Alliance)는 대로우 밀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저의 전인적 사역(Holistic Ministry)의 연합체입니다. 세계관이란 이 세상과 실체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냐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저의 전인적 사역은 어떻게 그 실체를 현실화 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지요. DNA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반 위에 지역 교회의 전인적 사역을 통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현재 개발과 출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피닉스 본부의 소수 직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이를 전담하는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대신 전 세계 교회 공동체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참여하도록 초청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뜻을 함께 하는 교회들이 DNA Korea를 결성하였고, 일본에서는 Friends with the Voiceless, 아프리카에서는 Samaritan Strateg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원리로 활동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단체라는 것을 밝



힐 필요없이 그저 같은 원리를 실천에 옮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급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기반이 없다(Off-base)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하비스트는 20여 개 국가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지인들입니다. 저희의 주요 선교 전략은 그 나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현지인들이 리더가 되어 Coaching하고 Modeling하여 양육하고 배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균형 잡힌 성경적 교회' 가 사역의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Answer**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지난 30여 년간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만난 교회들은 대부분 성경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두 복음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

게 훈련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학교들조차 젊은 예비지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할 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열심히 배가 사역을 해서 결국 점점 더 많은 수의 영적 아이들을 양산해내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한국의 국민 모두가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종이셨습니다. 희생적이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희생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자도의 목적이 단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다면, 제





속해서 미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양산해낼 것입니다. 이래서는 저렇게 미성숙한 집단에 내가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세상에 심어주게 될 뿐입니다.

한 예를 들지요. 저는 어제 오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 모인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들 주님의 일은 뭔가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사실 그것은 가족과 그들이 속한 직장, 학교, 모임 등 공동체를 섬기는 삶의 방식이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섬김을 통해 큰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통해 어린이 도서관이나 양로원이 생겨날 수 있겠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먼저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을 세우고, 사람들도 모두 여기에 매진하는 듯 합니다.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참 잘 완수해냅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동안은 무엇을 합니까? 그저 다음 봉사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족, 당신 아내나 자녀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제가 어제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사역을 각자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더니,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더군요. (웃음) “몇 번이나 아내 대신 설거지를 했나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든 적이 있나요? 집안 청소는요? 빨래는요?” 이런 것이 봉사이고, 예수님도 기꺼이 하셨을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가 있다면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 직장 상사에게 충고를 해줄 수는 없더라도,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Question** 박사님께서서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Answer** 제가 한국 교회에서 관찰한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최상의 것들을 추



구하더군요. 그들은 자녀가 최고의 교육,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보수를 받게 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시겠지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와 그들의 출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녀의 아들들이 출세를 해서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천국에서 최고의 지위는 학벌이나 높은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세계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성공지향적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결코 당신의 성공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바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상 명령 완수의 초기 과정에 불과합니다. 계속 전도만 하면, 계속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재생산하게 될 뿐입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을 성경적 관점,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해석하는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 후,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단지 이해에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론적, 신학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말해온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십시오.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이 성공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교회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이후 로마교회와 같은 제도적(Institutional) 교회가 있었고, 오직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던 개혁신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계몽주의와 상대주의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현대 교회가 나타났고, 지금은 포스트모던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에 속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에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교회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지 주목합니다. 교회의 변천에 따른 선교 전략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의 선교 전략은 '성육신적인 삶' (incarnational living)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제도

적 교회 시대의 선교전략은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개혁신교 시대의 선교 전략은 '거듭남의 체험'이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여전히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선교 역할을 다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시대의 전략은 '선행'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모던 교회 시대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 선교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계속해서 실천되어야 했지만, 교회가 보여주듯 선교전략은 시대마다 주류를 형성하는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Question 한국에 번역된 책이 있던데 어떤 책입니까?**

**Answer 『예수님이 시장이라면(If Jesus Were Mayor)』**이라는 책입니다. 이책의 기초를 이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서울 시장, 혹은 당신이 사는 도시의 시장이라면,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실까요?', '그분이라면 이 사회 전반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역할을 조명해보





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인 결코 시장과 같은 정치적 역할에 나설 분은 아니시지만(웃음), 저는 예수님이 우리 도시의 시장이라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겠는가를 상상해보면, 교회가 이 사회에 해야 할 역할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변화라면, 그분의 대사로 임명받은 우리가 그 변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지혜와 경륜이 드러나시고 이땅에 변혁과 치유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을 위임 받은 기관입니다.

**Question 박사님은 교회를 통한/중심으로 한 총체적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총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조언해주신다면?**

**Answer**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박교수님의 경우 이미 이론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웃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학생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그중 일부는 도와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격려해 주세요. 또 소풍중 계산대의 직원에게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람들이라서,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당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체적으로 성경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섬김을 Modeling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당신 학생들과 나누세요. 삶의 한 예를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세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 방법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인 제자의 삶으로 도전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왜 늘 이러한 일을/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반성하고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사역 자체에 몰두해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미국인 선교사 친구에게 심각하게 묻은 적이 있습니다. '던, 물론 나는 자네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해온 것을 잘 아네, 그런데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놀랍게도 그는 그 이유를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화살을 쏘아 과녁을 맞추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역자들이 전도와 교회 개척이라는 프로젝트에 열심을 내는데도, 진정한 변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 혹은 교회 개척이 그들의 진정한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며, 사역의 전부입니다.

**Question 박사님의 사역에 관심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연락주시면 언제라도 돕겠습니다. 우선 한국 분들은 DNA Korea([www.dnakorea.org](http://www.dnakorea.org))를 통해 동참하실 수 있고, 하비스트는 [www.haverstfoundation.org](http://www.haverstfoundation.org)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저는 정말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만난 한국 기독교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고 열정적으로 일을 도모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솔직하게 인정하



고 그 이유를 찾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잘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말하지요. '내가 말 한대로만 따라 하지 말고, 여러분과 처한 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조정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시도하는 주체가 한국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박 모피트** 현 국제 허비스트 선교회 총재로 지난 20여년간 균형잡힌 성경적 교회성장을 위해 전세계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전략가이자 훈련가로 일해 왔다. 지역교회 지도자들, 특히 제 2/3세계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총체적 사역을 하도록 훈련하고 있으며, 총체적 사역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훈련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1981년 이래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수천 명의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인도하였다. 대로우 밀러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의 교회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된 교회들의 지역사회와 열방 속에 전인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본질 회복운동'인 DNA사역도 하고 있다.



**박영주** 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중앙기독교총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현장 경험을 하였으며,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에서 MS in Education,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 교리 Ed.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통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밥 모피트의 서적을 소개합니다.



## 예수님이 시장이라면

밥 모피트, 칼라 테쉬 저 | 민요섭 역 | 서로사랑

지역 사회 선교 전략을 담은 『예수님이 시장이라면』, “예수님이 시장이라면?”이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책은 ‘교회 안으로’라는 패러다임에서 ‘교회 밖으로’라는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도 안내하고 있다. “예수님이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이 책에서 묻는 핵심적 질문이다. 오래전 대영제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운동이라든지, 이웃에 대한 조그만 친절도 모두 그 답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른 질문을 한 번 해 보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회 내에 배치를 받은 교회는 그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인가? 사회의 약자들을 옹호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가중히 여기시는 사회 불의를 지적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 구원에서 시작하여 사회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보다 넓은 목적을 수행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추적 기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대표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팔복할 만한 변혁이 일어나길 기대하게 된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교회

는 존재했던 당시의 문화들을 형성해 나갔다. 하지만 오늘날은 얘기가 좀 다르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인구의 절반가량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화권에서조차 정치와 경제는 부패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도 않고, 민족들과 종족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 심지어 인구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국가들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다.

왜 교회는 주변 문화를 변혁시키지 못했을까?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아마도 핵심적 문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열정조차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_본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시장이라면’ 하실 일들을 찾아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